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54 회색과 언어

기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그레이 메일'



그레이 레이디(gary lady)는 미국 적십자사에서 의료봉사하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그레이마켓(gray market)은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암시장 을 의미한다.

그레이 메일(gray mail)은 기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다.

뉴트럴 그레이(neutral gray)는 종류가 매우 많고, 유채색 기미가 없는 중성의 회색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Munsell Book of Color'와 'Color Harmony Manual'에서 같은 표준색 표집에 있는 무채색 단계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순수한 무채색을 neutral gray라고 한다.

그레이 몽크(gary monk)는 엘리자베스 앤 시튼(Elizabeth Ann Seton) 수도회의 수도사를 의미한다.

밤에는 모든 고양이 회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률적 의미에서, 회색 영역은 허가와 금지 사이의 불분명한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범망의 틈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레이 베어드(gray beard, gray haired)는 노인을 의미한다.

샌드(sand)는 모래의 색이다. 모래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래는 밝은 회색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레이 시스터(gray sister)는 제3회 프란체스코 수녀를 의미한다.

슬레이트 그레이(slate gray)는 슬레이트의 색이고, 석판(石盤, 석판석

그레이 에미넌스(gray eminence)는 막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슬버 거스(silver goose)는 색깔이 은색이고, 거위 모양과 비슷한 직장경(直腸鏡, 직장 속으로 밀어 넣어 내부의 상태를 검사하는 기계)을 의미한다.

그레이 에어어(Gray areas)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회색 지역(Gray areas)이라 한다.

슬버 라이닝(silver lining)은 절망과 불행 한가운데서 밝은 조짐이나 희망을 의미한다.

그레이 칼라(gray collar)는 기계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슬버 머니(silver money)는 은화를 가리킨다.

그레이 파워(gray power)는 노인의 힘을 의미한다.

슬버 불러(silver buller)는 마법 같은 약, 마법, 확실한 문제 해결법을 의미한다.

그레이 퓨처(gray future)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의미한다.

슬버 블러(silver buller)는 마법 같은 약, 마법, 확실한 문제 해결법을 의미한다.

그레이 프라이어(gray frair)는 프란체스코회의 수도사를 의미한다.

(石板石)을 얇게 깎아 만든 판) 색이라고도 부른다. 약간 보라기미를 띠는 회색이다.

슬버 라이닝(silver lining)은 절망과 불행 한가운데서 밝은 조짐이나 희망을 의미한다.

슬버 머니(silver money)는 은화를 가리킨다.

슬버 불러(silver buller)는 마법 같은 약, 마법, 확실한 문제 해결법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어느 좋은 '교장' 선생님

기고



조재호  
무등초 교사

아름다운 완도 서망산과 청해진 포구도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이 되듯, '좋은 수업'도 어떤 관점,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생성된다. 그레아 학교 바깥에 계신 학부모들이 우리가 처한 공교육 현장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듯하다.

첫째, '좋은 수업'이라는 어떤 이데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공교육 현장에는 유행처럼 많은 사조들이 휩쓸고 갔다. 열린교육, 완전학습모델, 배움의 공동체, 긍정훈육교육, 회복적 서클 모형... 그런데 어떤 형태의 수업도 틀린 것이 없고, 완벽히 옳은 것도 없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이 느끼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교사의 콘텐츠 제공방식이 아닌 실제 '학생들의 배움'에 집중하지는 함의들이 있었고, 그에 준해 수업참관 혹은 장학이 이뤄졌지만 그마저도 부작용이 컸다.

둘째, 교내 공개수업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모든 참관수업의 형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과거

아주 오래전에 1년 차 남교사로서 교내 공개수업을 경험한 나로서는 아직도 그 공포가 생생하다. 당시 교장선생님은 "평소 집 밥을 그렇게 성대하게 차릴 수는 없으니 간혹 한 학기에 한 번씩이라도 성찬"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 같다. 그렇지만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에 대해 교사들 및 교육학자들은 많은 반성을 해 오고 있다. 수업이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아닌 실제 배움이 생성되게 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혹은 선배들에게 성장을 위한 요청으로 수업이 '함께 나누기'가 돼야만 한다. 하루만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먹고 일상에선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

셋째, 지금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이다. 주변 중학교 과학교사의 말인데 "25명의 학생 중 경계성지능, 우울증, 주의력결핍장애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따라올 수 없는 학생이 20%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 학생의 수는 매년 늘어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나눠준 스마트기기는 보관하는 업무, 관리하는 노동시간만 늘어 '챗지피티'가 무슨 의미냐는 것.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인 방해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이 수업이 돼 버린 현실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본원적

인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어느 좋은 수업'보다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교장 선생님'이다. 코로나 시기, 결정적인 시점에서 관계맺기 자체를 상실한 청소년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근육이다. 학교에 와서도 불안에 잠겨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자제를 못해 수업 시간에 주먹질을 하고, 교사 앞에서 욕질을 해대는 변해버린 학교 현장을 마주한 교사들은 좋은 교장선생님을 기대한다. 위기관리에 놓인 아이 부모와 상담하느라 힘들어하는 교사를 대신해,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보결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교장선생님. 그것이 '이 교육위기 시기에 선생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이고, 뛰어난 선배님들이다. 교육행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교육자로서 본질인 '수업'의 전문가이시니 '공개수업'의 모델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의뢰계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일수록 수 술을 공개하는데, 왜 공교육에서는 '1년 차 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훌륭한 분들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크게 밝아질 거라고 믿는다. 정말 수업 잘하는 교장선생님이 제일 멋집니다!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진일보



한국어 서문 고려인동포 '러시아어' 재난문자 받는다

광주 고려인마을이 마을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라디오 방송인 고려방송(GBS)을 활용해 지난달부터 국내 최초로 재난문자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전송하는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어로만 전파된 재난문자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려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 시기술을 활용한 GBS의 재난문자 번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긴급문자를 러시아어로 바꿔 고려인 동포나 재한 러시아인에게 보낸다. GBS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러시아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난문자 수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진일보



맥주 밀면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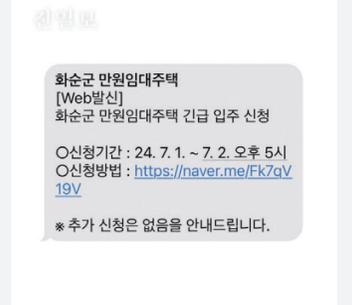
'4캔 1만원' 수입맥주를 살 땐 밀면을 꼭 확인해야겠다. 최근 할인 행사에서 품질기준을 훌쩍 넘긴 재고가 판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유지기한이란 제품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는 기간으로, 이 기한을 넘긴 맥주는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다. SNS 등에서 이미 오래된 행사맥주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실제 본보가 광주 지역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행사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1~6개월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품질유지기한'을 넘겨 팔아도 저촉되지는 않는다.

진일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철거 업체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8억4300만달러(약 1조1600억원)다. 스페이스X는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ISS를 태평양에 추락시킬 발사체를 제작할 예정이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 등 23국이 참여해 건설한 우주 실험시설로 1998년 첫 발사 이후 20년 넘게 국제 우주 연구에 큰 역할을 맡았다. ISS 퇴역 시점은 2030년으로 잠정 확정됐으며 수명이 종료된 ISS는 태평양 '포인트 니모'에 추락시켜 폐기할 예정이다.

진일보



화순군이 '만원 임대주택'의 입주 일정 변경을 당첨자들에게 통보한 후 제시한 해결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 일정 변경 통보 이후 언론보도가 쏟아져 화순군은 지난 1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전세 계약 만료 등 곤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이 원한다면 당첨된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영아파트로 긴급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취재 결과 화순군이 안내한 다른 부영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기존 당첨된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부영주택과 선협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화순군은 긴급 입주자 수요 조사 이후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Includes QR code and social media links.

'거리의 눈'인 셉테드,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예방되길

독자투고

흔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문화 공간 보다 비행을 유발하고 가출과 탈선을 조장하는 환경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내 폭력예방 주력한 결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부른 호기심으로 술과담배를 사기위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단독만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 주민 모두가 청소년 탈선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 무인점포 매장이 크게 늘어 인형뽑기, 아이스크림 가게 시작으로 커피점, 빨래방 등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다.

무인점포 절도 범죄자 연령은 10대 청소년으로 절도 수법을 SNS 통해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셉테드(CPTED)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하고 있다. 기기 내부에는 열림 경보기 부착, 외부에는 검거용이성 놀이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CCTV·비상벨 설치, 정기적 방범진단 등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범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경찰의 적극적 활동과 지역 주민들은 '거리의 눈'이 되어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병준 <전남경찰청 범죄예방계 기동순찰대 경사>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Footer area containing the @jnibo Instagram handle,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